

경제주평

- 글로벌 경제, 높아지는 하방압력 속 차별화 진행
- 최근 주요국 경기 동향과 시사점

목 차

■ 글로벌 경제, 높아지는 하방압력 속 차별화 진행 - 최근 주요국 경기 동향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3
2-1. 미국	3
2-2. 유로존	10
2-3. 일본	15
2-4. 중국	20
2-5. 인도	25
2-6. 베트남	28
3. 시사점	31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저 자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한 재 진 연 구 위 원 (2072-6225, hzz72@hri.co.kr)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신 지 영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 임 연 구 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글로벌 경제, 높아지는 하방압력 속 차별화 진행

- 최근 주요국 경기 동향과 시사점

■ 개 요

최근 세계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던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9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어 2022년 8월까지 12개월 연속 하락해 98.9p를 기록했다. 동지수는 국별로도 포함 또는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과 독일 등의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선(100p)을 하회하고 있고, 중국 역시 지난 8월에 98.5p로 기준선을 하회했다. **한편, 글로벌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물론 공급망 압력 역시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262.0으로 기준 200을 상회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공급망압력지수 역시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1.84를 기록해 평균값 제로(0)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글로벌 주요국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① 미국 : 고물가 및 금리 상승 압력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상반기 평가) 미국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상반기 역성장 기록하였으며, 고물가와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는 민간·정부투자의 부진으로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고용시장은 현재 견조한 모습을 보이나, 노동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향후 노동수급은 타이트(tight)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연준의 장기 물가목표 수준(2%)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물가 오름세는 기저효과와 공급망 제약의 점진적인 개선으로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은 고물가 대응을 위해 급격한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파월 의장의 긴축적 금리 수준의 장기화 발언(재스홀, 8.26)으로 기준금리는 향후 3% 후반에서 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물가·고금리로 가계의 실질소득 회복세가 둔화되고 차입여건이 악화되면서 가계소비는 둔화되고 있으며, 주택시장도 조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망) 하반기 미국 경기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고물가 및 금리상승 압력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확대되어 2023년에는 1% 초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미국 경제는 역성장을 기록한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경기 흐름을 보이면서, 2022년에는 1% 중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3년에도 연준의 급진적인 통화정책과 고물가 현상이 지속된다면, 내수부진으로 1% 초반대의 성장에 그쳐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유로존 : 에너지 위기로 경기둔화 가능성 확대

(상반기 평가) 유로존 경제는 민간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성장 흐름을 지속하였으나,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등으로 경기둔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유로존 경제는 민간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2022년 상반기 중 2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최근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체감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준선마저 하회하여 향후 유로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산업생산은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의 생산 증가로 상승 전환하였으나, 에너지 부문의 생산 둔화가 전산업생산의 증가세를 제한하는 모습이다. 상반기 중 수출입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며,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소매판매는 감소세로 전환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신뢰지수가 코로나19 위기 수준을 하회하여 향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며 8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9.1%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유럽 경제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중단으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망) 유로존 경제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둔화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2023년에는 1%대 미만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하방 압력이 심화되어 2022년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3년에는 1%대 미만까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장기화,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 될 경우 유럽 경제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어 2023년 제로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③ 일본 :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2023년까지 1%대 성장률 유지

(상반기 평가) 일본 경제는 외수 및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경기선행지수 하락 등 하반기 들어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반기 일본 경제는 민간소비 회복으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하였으나, 최근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반기 개인소비는 실질소비활동지수가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고물가 지속과 고용 환경 개선 지연으로 소비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반기 소비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상반기 건설·설비투자는 기업의 수익 개선세로 완만하게 회복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대외 부문의 경우 수출·수입이 증가하였지만, 실질 무역수지는 악화되었으며, 향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중국 코로나19 재봉쇄와 같은 리스크로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력 부족에 따르는 기업 생산 및 수출 물량 감소 가능성이 경제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일본 경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내외수 동반 경기둔화가 2023년에도 이어지면서 1%대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일본 경제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둔화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져 2022년과 2023년에는 1%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④ 중국 : 경기 부양에 따른 하반기 소폭 반등 전망

(상반기 평가) 중국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상하이 도시봉쇄 등 하방 리스크 확대에 따른 내수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시행되면서 6월부터 소폭의 회복 양상이 나타났다. 중국 경제는 연초부터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뿐 아니라, 제로 코로나(Zero-COVID) 정책 강화에 따른 상하이 도시봉쇄 여파로 상반기 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상반기 소비는 온라인 소매(Online retail) 등 소비의 주요 성장 동력 약화로 감소세가 지속했다. 이는 2020년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빅테크(Big Tech) 규제에 최근 도시봉쇄 등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가 가중되면서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소비 동향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비자신뢰지수(CCI)는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투자는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에 기인해 상반기 동안 6%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중국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히 커지는 실정이다. 수출 경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도시봉쇄 등 요인에 따른 한시적 둔화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8월부터 美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 여파로 소폭의 둔화를 보이고 있다. **(전망) 2022년 하반기 중국 경제는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기 부양 효과로 소폭 회복이 예상되나, 당초 목표치인 5.5%에 크게 못 미치는 3%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로 코로나 부작용 및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 경기 하방리스크 방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최근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5% 성장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국 경제는 4~5%의 지속 가능 성장이 어렵다면 10년 이내 진정한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하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⑤ 인도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재정·무역 쌍둥이 적자 등이 고성장을 제한

(상반기 평가) 인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속화되었다. 인도의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022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1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세가 강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제조업 생산은 2022년 1분기 이후 회복세가 빨라지고는 있으나, 6월 들어 생산지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등 주요 대외거래 수지는 대규모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외수지 적자 누적, 환율 상승 등으로 외환보유고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전망) 인도 경제는 2022년에는 7% 중반대 성장세를 기록한 이후 2023년에는 6% 초반 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생산 및 소비 둔화, 대외수지 악화 지속, 재정적자 누적에 따르는 경기 부양력 약화 등으로 고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⑥ 베트남 : 내외수 동반 회복으로 고성장 기조 유지

(상반기 평가) 베트남 경제는 코로나19 안정에 따라 서비스업 회복세가 빨라지고, 수출 호조세가 유지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속되었다. 베트남의 제조업 생산은 2021년 11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최근 4개월 동안은 10% 이상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최근 2%대로 복귀하였으며, 실업률도 2%대 초반의 안정세를 유지

하고 있다. 또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개선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외환보유고 역시 변동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VND)/달러 환율은 상승세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책금리 역시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베트남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2022년에는 6% 전후 수준, 2023년에는 6% 중반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향후 베트남 경제는 내외수 동반 회복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코로나19 위기를 포함한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베트남의 2022년과 2023년 경제성장률은 모두 6% 이상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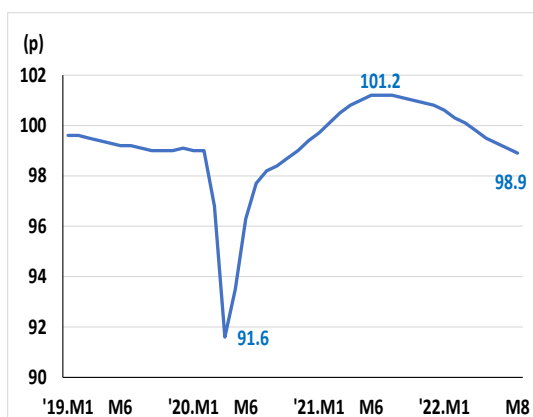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 글로벌 공급망 개선 지연, 미중 갈등 지속 등 기존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주요국 경기 둔화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외 리스크 관리와 대내 경기 둔화 압력 해소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 대외 리스크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로의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우선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무역 등 대외 경상거래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미중 갈등 등에 따르는 국제교역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국내에 과급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대외 여건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국내 기업들도 고수준의 원자재 가격이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과 같은 기존 리스크들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도 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개요

○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고조) 세계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고물가 지속,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 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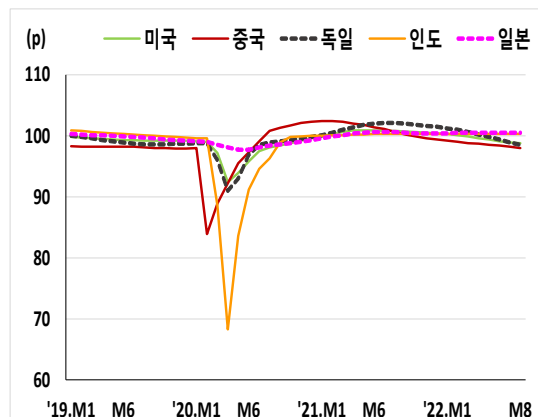
- OECD 경기선행지수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확대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던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9월부터 하락세로 전환
 - 이후, 동 지수는 12개월 연속 하락해 2022년 8월 98.9p로 기준치인 100p를 하회하는 수준
- 주요국 경기선행지수도 보합 또는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선진국의 경우, 미국과 독일 등의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선 100p를 하회하면서 하락세가 지속
 - 주요 개도국 중 중국의 경기선행지수가 2022년 3월 100.6p를 정점으로 하락 전환해 지난 8월에는 98.5p까지 하락
 - 한편, 선진국인 일본과 개도국인 인도의 경기선행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



자료 : OECD.

<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추이 >



자료 : OECD.

○ (높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동시 진행) 글로벌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물론 공급망 압력 역시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

-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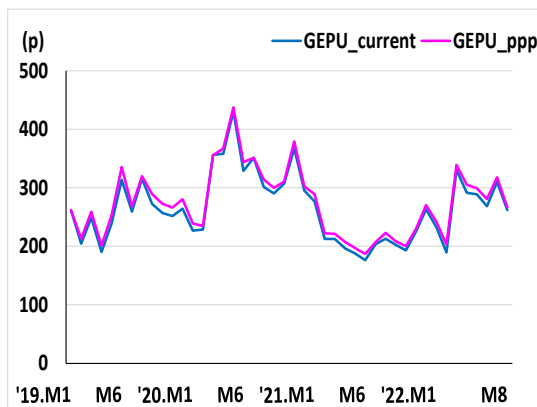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5월 430.2(이하, 명목 기준)까지 상승했던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2021년 6월 176.9까지 하락
-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로 전환한 후 지난 2022년 8월에는 262.0을 기록

- 글로벌 공급망압력지수(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 역시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급등했던 글로벌 공급망압력지수는 2020년 11월 0.70까지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되찾았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우려로 2021년 12월 4.32까지 급등
- 이후,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2022년 8월에는 1.84까지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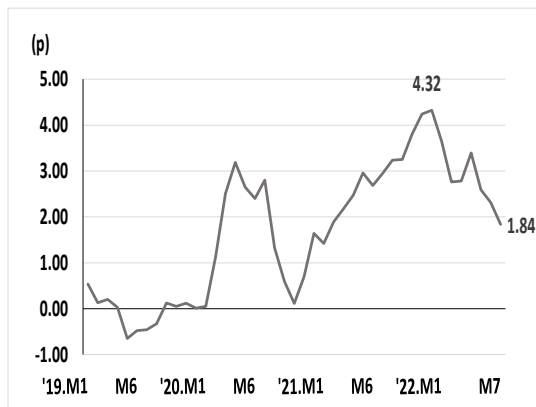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글로벌 주요국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 추이 >



자료 : EPU, www.policyuncertainty.com.
 주1) 200 이상이면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
 주2) 'GEPU_current'와 'GEPU_ppp'는 각각 경상가격 GDP와 구매력평가 기준 GDP로 측정된 불확실성지수를 의미.

<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 추이 >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주 : 평균값은 제로(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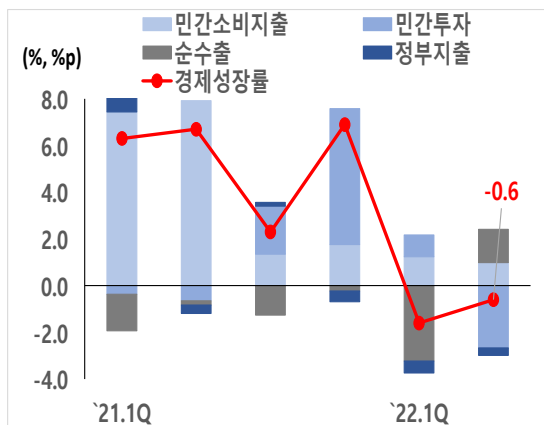
2.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① 미국 : 고물가 및 금리상승 압력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 (상반기 평가) 미국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진행되면서 2분기 연속 역성장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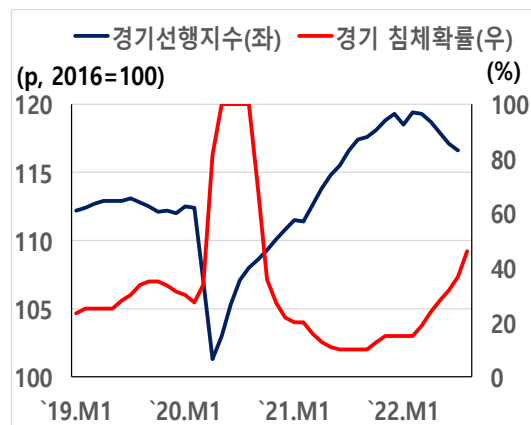
- 미국 경제는 민간 및 정부투자의 부진으로 올해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
 - 2022년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0.6%(전기비연율)를 기록하면서, 1분기(-1.6%)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2022년 2분기 민간투자¹⁾ 및 정부투자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2.7%p, -0.3%p를 기록하면서 2분기 역성장을 견인
- 경기선행지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1년 내 경기침체 확률도 상승하는 등 미국 경제의 하반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증
 - 향후 경기 방향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는 최근 고점인 2022년 2월 119.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7월에는 116.6 기록
 - Bloomberg가 산출하는 미국의 경기침체 확률(1년 내)도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점증

< 경제성장률과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경기 선행지수 및 침체확률 추이 >



자료 : Bloomberg.

1) 민간투자는 금리상승으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2022년 2분기 구조물 투자 및 주택 투자가 전기비연율 기준 각각 11.7%, 14.0%씩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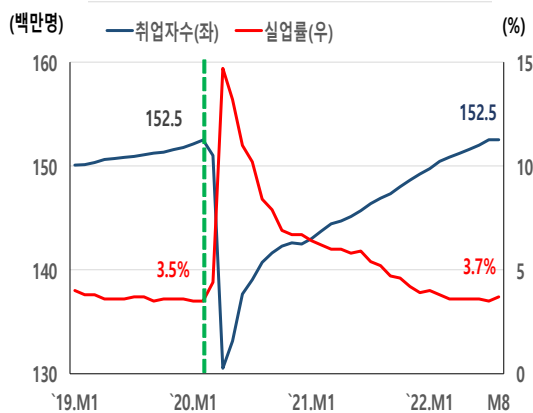
- 상반기 미국 노동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실업률과 고용수준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 8월말 기준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는 152.5백만명을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전(2020년 2월말, 152.5백만명)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취업자 수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8월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수는 31.5만명을 기록
- 실업률은 2020년 4월 14.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22년 8월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2020년 2월, 3.5%)에 근접한 3.7% 기록
- 한편, 8월 경제활동참가율(62.4%)은 팬데믹 이전수준(2020년 2월, 63.4%)에 미치지 못하면서, 여전히 노동수급은 타이트(tight)한 것으로 평가

- 향후 실업률의 경우에는 4% 내외의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노동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신규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2022년, 2023년 경제활동참가율을 각각 61.9%, 62.1%으로 전망하면서, 팬데믹 이전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평가
- 이는 향후 2년간 미국의 노동수급이 타이트할 것을 암시
- 향후 경기둔화로 실업률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타이트한 노동여건으로 내년까지 4% 내외의 낮은 실업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신규 취업자수 규모는 노동공급 부족으로 올해 상반기 수준(상반기 월평균 신규취업자 수 46.1만명)을 상당 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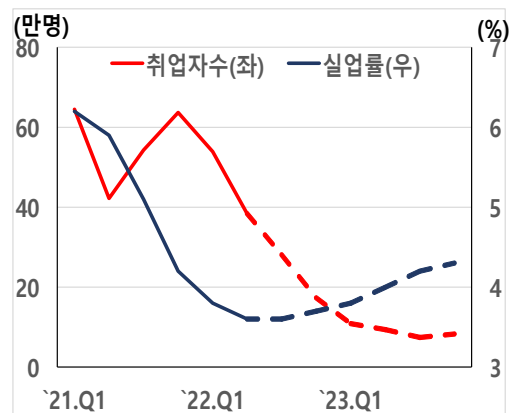
< 실업률 및 취업자 수 추이 >



자료 : 노동통계국.

주 : 취업자 수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의미.

< 고용 및 실업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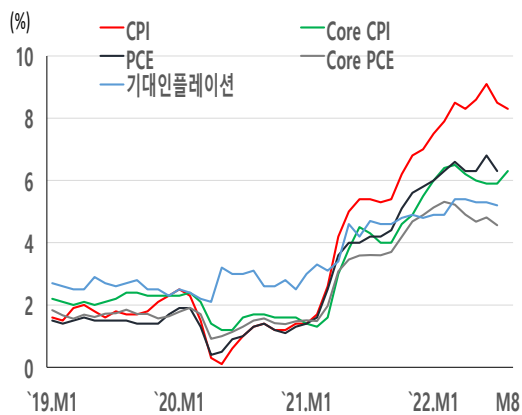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주 : 점선은 IB 전망치의 평균(8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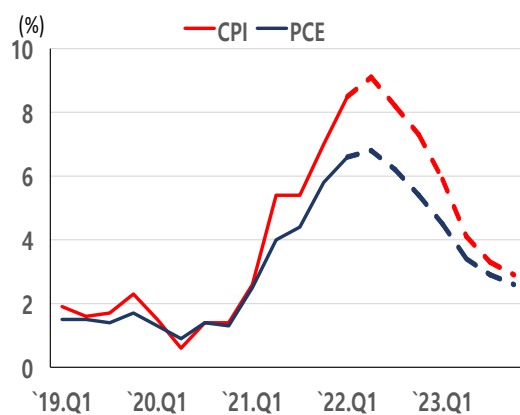
- 물가는 공급망 제약 여파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연준의 장기 물가목표 수준(2%)을 큰 폭으로 상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공급망 차질, 곡물과 에너지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²⁾ 물가는 상반기 상당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9.1%) 대비 하락한 8.3%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유지하였으며, 8월 근원물가상승률도 6.3%의 고수준 기록
 - 7월 PCE 물가상승률도 6월 고점 이후 소폭 하락한 6.3%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음
 - 또한, 민간의 단기(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7월 기준 5.2%를 기록하면서, 지난 3월 이후 5%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
- 물가 오름세는 기저효과와 공급망 차질의 개선으로 고수준을 유지하며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준의 장기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임
 - 작년 하반기 높은 물가수준(소비자물가상승률 5.8%)에 따른 기저효과, 미 연준의 고강도 통화정책,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
 - 단,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유지(flatten out)될 것으로 예상

< 물가 상승률 추이 >



자료 : Bloomberg, 미시간대학교.
 주 : 기대인플레이션은 1년 이후 전망을 의미.

< 소비자 물가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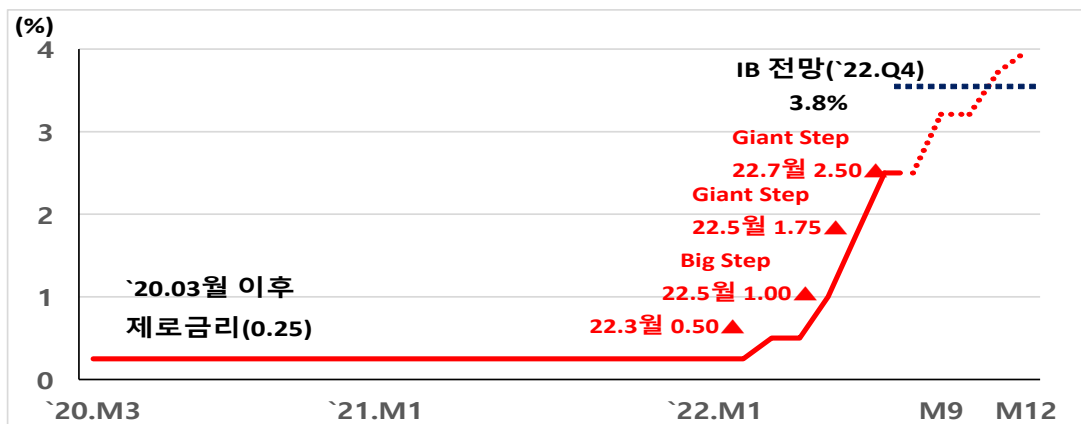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주 : 점선은 IB 전망치의 평균(8월말 기준).

2) 2022년 1~8월 WTI유가는 전년동기대비 54.2% 상승.

- 미 연준은 고물가 대응을 위해 급격한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을 동시에 시행
 - 미 연준(FED)은 심각해지는 물가 오름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2022년 3월 25bp 인상한 이후 5월 빅 스텝(Big Step, +50bp)을 단행하였으며, 6월과 7월에는 2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 +75bp)을 시행
 - 이와 함께 연준은 6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를 의미하는 양적긴축(QT, Quantitative Tightening)을 시작하면서, 6월에서 8월달까지는 매달 475억 달러 축소하였으며, 9월에서 12월부터는 950억 달러 축소 예정
- 미 연준의 정책금리(상한 값)는 올해 말 3% 후반에서 4%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물가가 진정될 때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가 지속될 전망
 - 파월(Powell) 의장은 잭슨홀(8.26) 기조연설에서 가계와 기업에게 어느정도 고통(some pain)이 수반된다고 할지라도 물가 오름세가 진정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 금리수준을 장기화(higher for longer)할 것으로 천명
 - 또한, 미 연준 주요 인사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4%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함을 언급³⁾
 -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은 12월 말에 연방기금금리가 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국제투자은행도 3% 후반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미 연준의 정책금리 추이 및 전망 >



자료 : FRED, Bloomberg, CME.

주1) 점선은 CME 전망치(9월 8일 기준)의 가중평균을 의미

주2) IB 전망치는 2022년 4분기 IB 전망치의 평균.

3) 메스터(클리브랜드 연준 총재)는 언론과의 인터뷰(8.31)에서 12월까지 정책금리를 4%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블라드 총재(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올 연말까지 3.75%~4% 수준이 적절하다고 언급. 보스틱(아틀란타 총재, 8.25)은 기준금리를 3.5%~3.7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인터뷰.

- 물가 급등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실질소득 회복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도 위축되면서, 가계소비는 둔화된 증가율을 보이는 상황

- 올해 상반기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물가오름세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
- 또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여건 악화되고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계의 올해 상반기 체감경기지수는 기준치(100p)를 상당 폭 하회
- 이로 인해 양호한 고용여건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 증가율(전기대비 기준)은 올해 상반기 둔화하는 흐름이 나타났으며, 7월에는 전월대비 0.2%를 기록
- 향후 高물가·금리 지속으로 가계의 소비회복 모멘텀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주택시장은 고금리로 인한 가계의 차입여건 악화로 주택 착공 및 허가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또한 다소 조정받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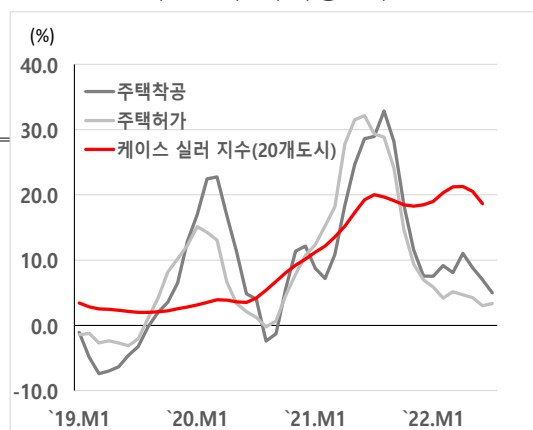
- 애틀란타 연준에 의하면, 가계의 주택구매여력을 나타내는 6월 주택구입능력지수(HOAM Index)는 모기지금리 상승⁴⁾으로 전년동월대비 28.2% 감소
- 이로 인해 주택거래⁵⁾와 주택허가 및 착공 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주택매매 가격(Case-Shiller index, 20개 도시 기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은 축소
-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주택구매 여력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주택시장은 조정국면에 진입할 전망

< 가계의 소비·소득·체감지수 지표 >

구분	(전기대비, %)			
	2021	2022 1분기	2022 2분기	7월
소비자 지출(실질)	7.9	1.8	1.5	0.2
재화지출	12.2	-0.3	-2.4	0.2
서비스 지출	5.8	3.0	3.6	0.2
가계소득(실질)	2.2	-7.8	-0.6	0.3
소비자 체감지수 ^(p)	77.6	63.1	57.9	51.5

자료 : Bloomberg, 경제분석국(BEA).
주 : 소비자체감지수는 미시간 대학교.

< 주요 주택시장 지표 >



자료 : Bloomberg.
주1) 착공 및 허가는 6개월 평균
주2)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4) 모기지금리(30년물 기준) 추이: 2021년 1월 3.5%→2022년 1월 3.8%→8월 5.66%.

5) 7월 신규 주택판매 건수(상무부)는 전월대비 20.2% 감소, 기존 주택판매 건수는 29.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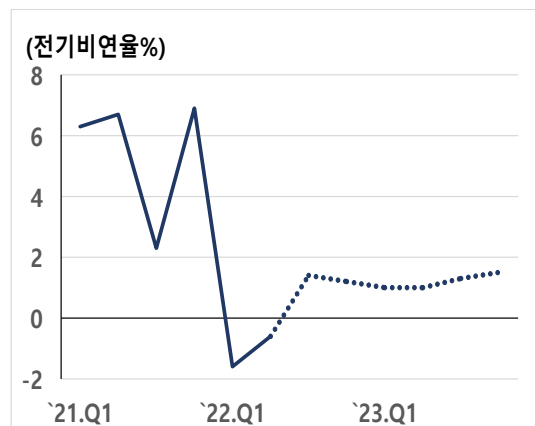
- 연준의 긴축기조로 강(強)달러가 시현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으로 달러 강세는 다소 조정될 가능성
 -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2022년 9월 6일 기준 미국 달러 인덱스(DXY)는 110.2를 기록하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10대 수준을 돌파하면서 달러 강세가 심화
 - 국제투자은행(IB)은 미 연준의 급진적인 통화정책으로 올해 말까지 달러 인덱스는 110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나,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으로 달러 강세가 상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도 상존
- (전망) 高물가·금리 지속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되어 올해는 1% 후반에서 2% 초반의 경제성장 전망,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1% 초반 전망
- 하반기 미국 경제는 역성장을 기록한 상반기 대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高물가·금리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 상존
 - 상반기 큰 폭으로 감소했던 민간투자 부문 개선⁶⁾과 양호한 고용여건으로 하반기 경기는 상반기에 대비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
 - 다만, 높은 수준의 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으로 민간소비 부진은 지속될 가능성
 - 또한,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이 지속되어 미국 경제의 완만한 경기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달러 인덱스 추이 >



자료 : Bloomberg.

< IB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 Bloomberg.

주 : 점선은 IB 전망치의 평균(9월초 기준).

6) 상반기 산업생산(7월 기준 전월대비 0.6% 증가)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6월, 7월 미국의 신규 자본재주문(Census Bureau)은 각각 8.9%, 8.4%를 기록하면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 주요기관은 2022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 대비 대폭 하향한 1% 후반에서 2% 초반으로 전망
 - IMF, OECD, World Bank, IB 등의 주요기관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1.6~2.5%으로 전망
 - 기관에 따라 예측치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대비 1.2~1.4%p로 큰 폭의 하향조정
 - 전망 하향의 주된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고인플레이션과 미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한 소비위축
 - 또한, IMF와 국제투자은행(9월초 기준)은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각각 7.7%과 8%의 높은 물가수준 전망

- 내년도 미국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IMF는 내년도 미국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하면서, 종전대비 1.3%p 하향 조정하였으며, 여타 주요기관도 1% 대의 낮은 수준을 전망
 - 한편,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2년 5월)는 2023년, 2024년도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약 1.9% 대로 추정
 - 즉, 내년도 미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경기침체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또한, 주요기관은 기저효과와 급진적인 통화정책으로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3% 초중반대로 전망하나, 여전히 연준의 장기목표를 상회하는 수준

< 주요기관의 미국 경제성장 전망 >

주요기관	2020	2021	2022(E)	2023(F)	2024(F)
IMF('22.07)			2.3%	1.0%	1.4%
FED('22.06)			1.7%	1.7%	1.9%
OECD('22.06)	-3.4%	5.7%	2.5%	1.2%	—
World Bank('22.06)			2.5%	2.4%	2.0%
국제투자은행('22.09)			1.6%	0.9%	1.7%

자료 : 각 기관 보도자료, Bloomberg.

주 : IB 전망치(9월 기준)는 투자은행 전망치의 평균을 의미.

② 유로존 : 에너지 위기로 경기둔화 가능성 확대

○ (상반기 평가) 유로존 경제는 민간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성장 흐름을 지속하였으나,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등으로 경기둔화 가능성이 확대

- 유로존 경제는 민간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2022년 상반기 중 2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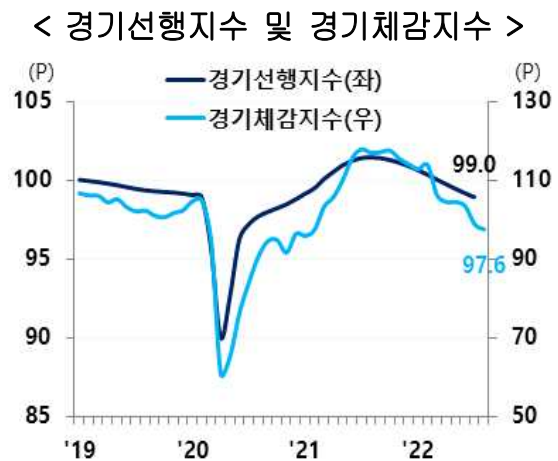
- 유로존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022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5.4%, 4.1%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지속함
- 부문별로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4.1%p와 2.8%p의 성장기여도를 기록하며 경제성장을 견인

- 최근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체감지수가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준선마저 하회하여 향후 유로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유로존의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9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이후에는 기준선(100p)을 하회
-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경기체감지수는 2022년 2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여 8월 현재 97.6p를 기록
-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에 따른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유로존의 주요 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지속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



자료 : Eurostat.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 OECD, European Commission.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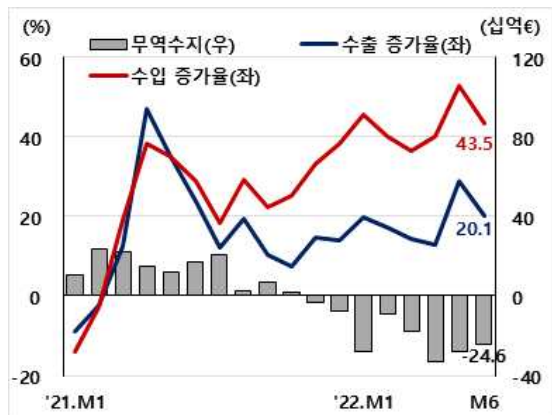
- 전산업생산은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의 생산 증가로 상승 전환하였으나, 에너지 부문의 생산 둔화가 전산업생산의 증가세를 제한
 - 전산업생산은 5월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하며 상승 전환한 데 이어 6월에는 2.4% 증가하였으며, 이는 6월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의 생산이 각각 7.6%, 4.0%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보임
 - 한편, 에너지 부문의 생산은 상반기 중 평균 -0.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산업생산의 증가세를 제한
- 상반기 중 수출입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에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22년 1~6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8.8%, 수입 증가율은 43.0%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특히, 상반기 중 광물성원료, 운할유 및 관련물질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57.5% 증가하며 높은 수입 증가율에 기여
 - 6월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20.1%, 43.5%를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
- 무역수지는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며 8개월 연속 적자
 - 상반기 중 무역수지는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1,404억 유로 적자를 기록
 - 6월 무역수지는 전월(284억 유로 적자)보다 소폭 개선된 246억 유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도 흑자 전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

<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



자료 : Eurostat.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 >



자료 : Eurostat.
주 : 수출입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소매판매는 감소세로 전환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신뢰지수가 코로나19 위기 수준을 하회하여 향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 확대
 - 소매판매는 2022년 중 증가세가 둔화하며 6~7월에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3.2%, 0.9% 감소
 - 7월 식음료 및 담배 판매는 2.4% 감소, 비식품 상품 판매는 0.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 소비자신뢰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7월에는 사상 최저치인 -27.0p, 8월에는 소폭 상승한 -24.9p를 기록
 - 이는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던 2020년 4월(-24.5p)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향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며 8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9.1%(잠정치)의 상승률을 기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8월에는 9.1%(잠정치) 상승하며 7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8.9%)를 경신
 - 품목 중 에너지(7월 기여도 4.0%p), 식료품 및 주류·담배(7월 기여도 2.1%p) 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세의 상당 부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식료품 및 주류·담배 등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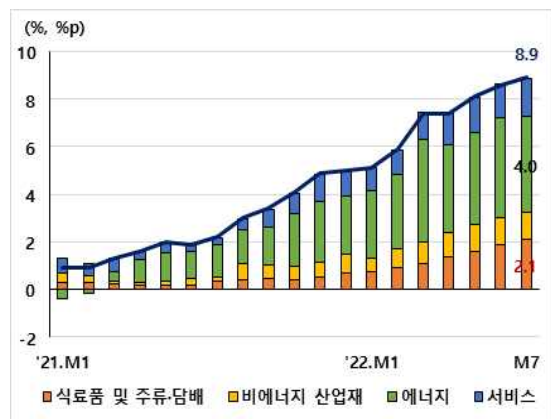
< 소매판매 증가율 및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



자료 : Eurostat.

- 주1)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주2) 소비자신뢰지수는 계절조정 값.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품목별 기여도 추이 >



자료 : Eurostat.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전망) 유로존 경제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둔화 가능성이 확대 되면서 2023년에는 1%대 미만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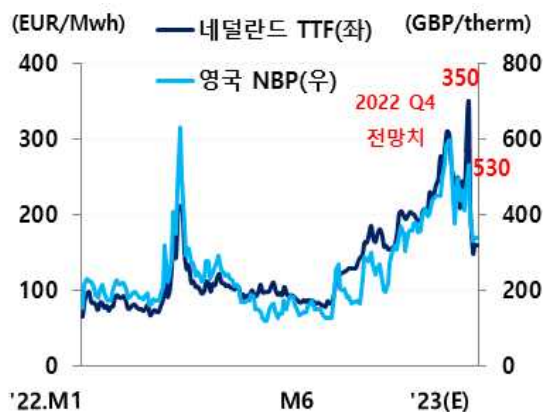
- 유로존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하방 압력이 심화되어 2022년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3년에는 1%대 미만까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IMF와 ECB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유로존은 2022년 2%대 후반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3년에는 1%대까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주요 국제 IB에 따르면 유로존의 2022년 하반기 성장률은 0.9%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2023년 말까지 경기 둔화세 지속이 예상
- 특히,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천연가스 가격도 2022년 말까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급등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2022년 말까지 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의 높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고려할 때 가계 및 기업의 체감 경기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우려됨
- 이와 같은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 경제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어 2023년 제로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도 존재
 - IMF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공급 전면 중단 시 2023년 EU의 경제 성장률은 약 1.3%p 하락하여 제로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음⁸⁾
 - 특히,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고 대체 에너지원이 부족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의 경우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됨

<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 >

기관명	연도	(%)	
		2022	2023
IMF('22.7)		2.6	1.2
European Commission('22.7)		2.6	1.4
European Central Bank('22.9)		3.1	0.9
주요 IB 평균('22.9)		2.8	0.2

자료 : IMF, Bloomberg.

< 유럽 천연가스 가격 및 전망 >



자료 : Bloomberg,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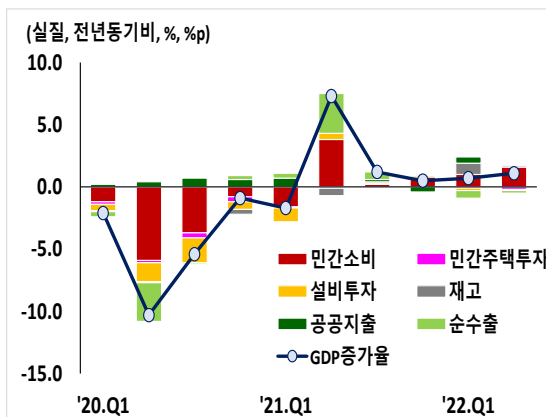
8)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22.

③ 일본 :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2023년까지 1%대 성장률 유지

○ (상반기 평가) 일본 경제는 외수 및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 약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경기선행지수 하락 등 하반기 들어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일본 경제는 2022년 들어 민간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 일본 경제는 전년동기대비 기준 2022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7%, 1.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부문별로는 민간투자과 순수출의 부진, 공공지출의 성장기여도 약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분기와 2분기 각각 1.0%p, 1.6%p로 컸기 때문
- 단, 최근 경기동행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는 98.6p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음
 - 단,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4월 102.9p를 최측근 정점으로 2개월 연속 하락

<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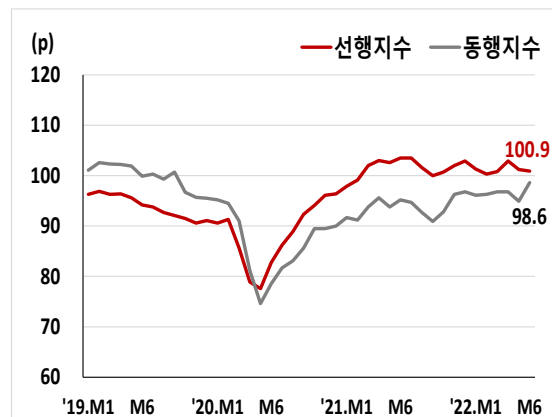


자료 : 日本 内閣府.

주1) 2022년 2분기는 속보치 기준

주2) 공공수요는 정부소비, 공적고정자본형성, 공적재고의 합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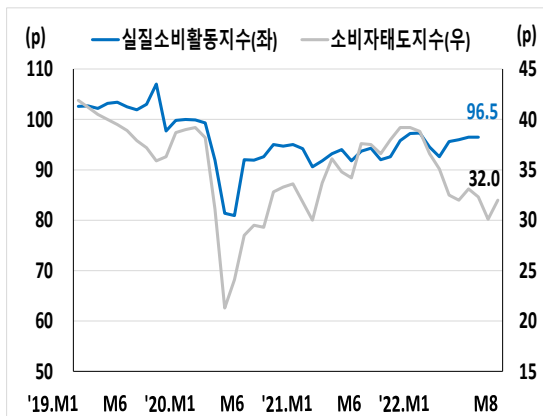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추이 >



자료 : 日本 内閣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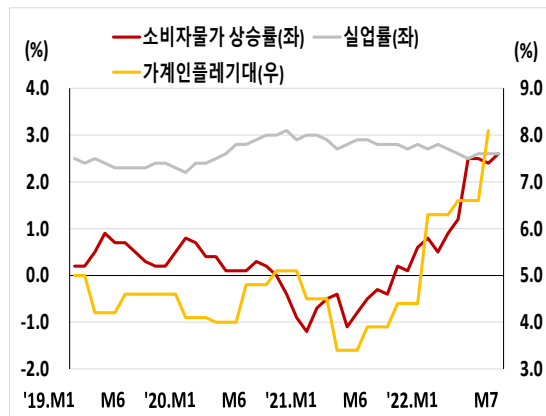
- 상반기 중 개인소비는 실질소비활동지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현재 가계소비 실태 전반을 종합해 지수로 보여주는 실질소비활동지수(100p 기준)는 연초 94.5p에서 6월 96.5p로 소폭 회복
- 단,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도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2% 중반대를 유지하는 고용 환경도 개선 지연⁹⁾
 - 연초 0.5% 수준에 불과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월 2.6%로 2%p 이상 상승했고, 5년 후 가계의 물가상승률 예상 평균치를 나타내는 가계인플레 기대도 지난 6월 8.1%까지 상승
 - 실업률은 동기간 2.8%에서 2.6%로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
- 향후 개인소비는 고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고용 환경 개선 지연 등을 반영해 소비자심리 위축 및 실질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소비자심리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연초 36.6p에서 8월 32.0p까지 하락하는 등 소비심리 위축에 따르는 가계소비 축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소비 관련 지표 추이 >



자료 : 日本 内閣府, 日本銀行.
주 : 소비자태도지수는 50이 기준.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실업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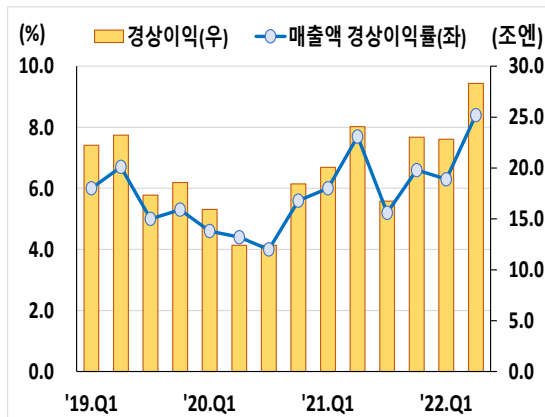


자료 : 日本 日本銀行, 総務省.
주 : 가계인플레 기대는 5년 후 물가상승률 예상 평균치.

9)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신규졸업자를 제외하고 파트타이머를 포함한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2022년 7월 1.29배로 연초 1.20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단, 코로나19 팬데믹 선언(2020년 1월) 당시인 1.49배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고용 환경 개선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日本 厚生労働省, 一般職業紹介状況(職業安定業務統計), 202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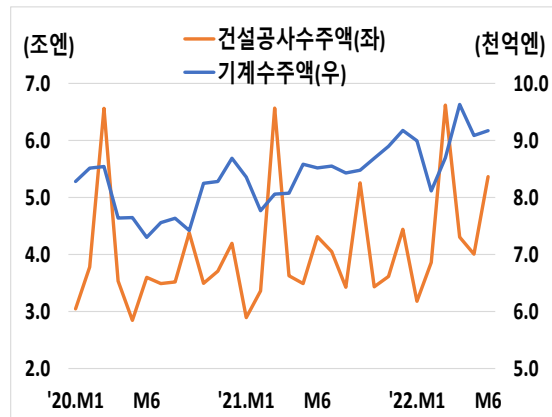
- 상반기 중 건설 및 설비 투자는 기업 수익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며, 하반기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
 - 민간 건설공사수주액은 연초 3.2조 엔 규모에서 6월 5.4조 엔으로 확대, 민간 기계수주액도 2021년 상반기 평균 약 8,200억 엔에서 2022년 상반기 8,900억 엔으로 대폭 개선
 - 법인기업 경상이익 및 매출액 경상이익률 역시 2022년 상반기에 대폭 상승해 민간 부문의 투자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법인기업 경상이익 및 매출액 경상이익률 추이 >



자료 : 日本 財務省.
주 : 금융업과 보험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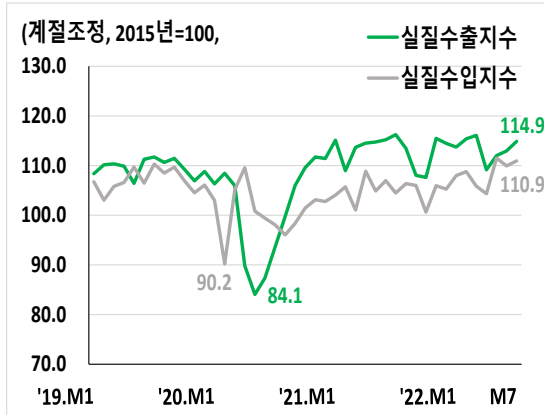
< 민간 부문 건설공사수주액 및 기계수주액 추이 >



자료 : 日本 内閣府, 建設交通省.
주 : 기계수주액은 계절조정 기준, 선박과 전력 부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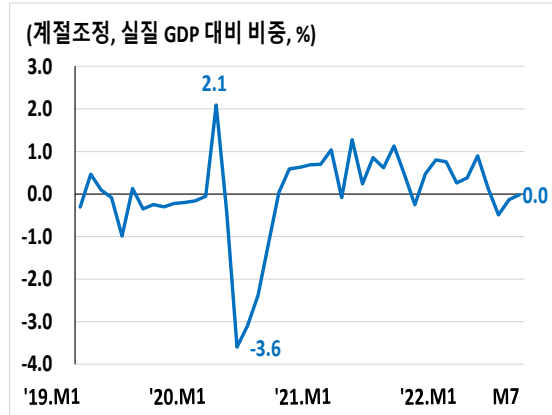
- 실질 수출 및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질 무역수지지수는 악화, 향후에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중국 봉쇄 등과 같은 리스크가 상존해 있어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상반기까지 실질 수출지수와 수입지수 모두 등락을 거듭했으나, 수출지수는 5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 수입지수는 7월에 반등했음
 - 단, 실질 GDP 대비 비중을 나타내는 실질 무역수지지수가 3월 이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봉쇄 등과 같은 리스크의 향방에 따라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폭적인 개선 기대는 약한 것으로 평가

< 실질 수출입지수 추이 >



자료 : 日本 財務省.
주 : 금융업과 보험업 제외.

< 실질 무역수지지수 추이 >



자료 : 日本 内閣府, 建設交通省.
주 : 기계수주액은 계절조정 기준, 선박과 전력 부문 제외.

- 한편, 전력 부족에 따르는 기업 생산 및 수출 물량 감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
 - 홋카이도(北海道)와 오키나와(沖縄)를 제외한 주요 지역, 특히 토호쿠(東北)와 도쿄(東京) 지역을 중심으로 2023년 2월까지 전력 예비율 부족 현상이 이어질 전망

< 동계 전력수급 전망 >

구분	2022년	2023년		
	12월	1월	2월	3월
홋카이도(北海道)	12.6%	6.0%	6.1%	12.3%
토호쿠(東北)	7.8%	1.5% (103만kW)	1.6% (95만kW)	
도쿄(東京)		5.5%	1.9% (99만kW)	3.4%
츄부(中部)				
호쿠리쿠(北陸)				
칸사이(関西)				
츄코쿠(中国)				
시코쿠(四国)				
큐슈(九州)	45.4%	39.1%	40.8%	65.3%
오키나와(沖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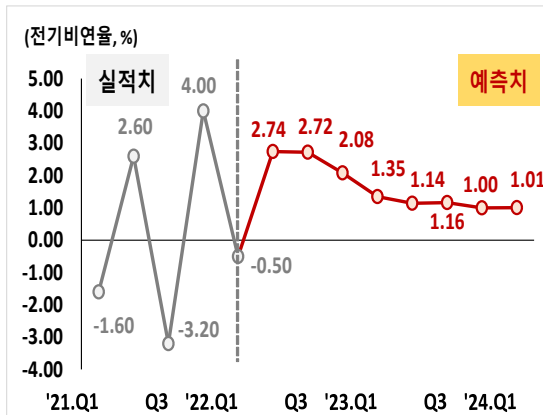
자료 : 經濟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 2022年度の電力需給対策について, 2022년 7월 20일.
주 : 괄호 안은 전력 예비율 3%p에 대한 부족분을 나타냄.

○ (전망)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내외수 동반 경기둔화가 2023년에도 이어지면서 1%대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그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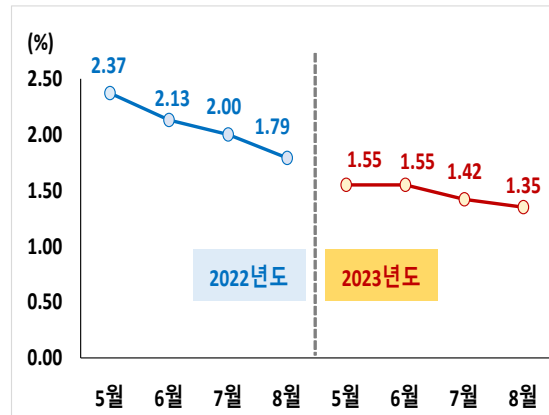
- 일본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둔화세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기비연율 기준 경제성장률은 3분기 2%대 후반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23년에는 1%대 초반대로 하락할 전망
- 2022년 2분기에는 속보치 기준 전기비연율 2.2% 성장에 그쳐 시장예측치보다 0.5%p 정도 낮은 수준을 기록

< 분기별 경제성장률 예측치 추이 >



< 조사 시기별 경제성장률 예측치 >



자료 :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ESPフォーキャスト調査 2022年 8月 10日.

주 :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회계연도 기준 당해년 2분기부터 다음 해 1분기까지임.

- 일본 경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

- 연간 성장률 예측치 역시 시간이 갈수록 하락, 2023년까지 1%대로 수렴
- IMF 역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7%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이는 기존 전망에서 0.6~0.7%p 정도 낮춘 수준¹⁰⁾

< 부분별 경제성장 기여도 예측치(2022~2023년도) >

구분	GDP 성장률 (%)	내수기여도(%p)		외수기여도 (%p)
		민간	공공	
2022년도	1.79	2.0	0.0	-0.2
2023년도	1.35	1.3	0.2	0.1

자료 :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ESPフォーキャスト調査 2022年 8月 10日.

주 :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회계연도 기준 당해년 2분기부터 다음 해 1분기까지임.

10)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22.

④ 중국 : 경기 부양에 따른 하반기 소폭 반등 예상

○ (상반기 평가) 중국 경제는 러-우 사태, 상하이 도시봉쇄 등 하방 리스크 확대에 따른 내수 경기 둔화가 지속하는 가운데, 5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시행되면서 6월부터 소폭의 회복 양상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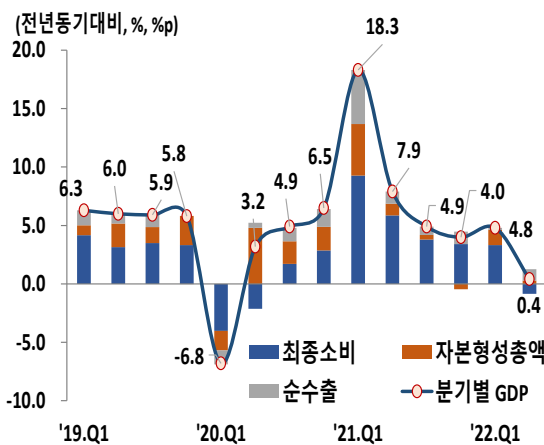
- 중국 경제는 연초부터 발생한 러-우 사태뿐만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정책 강화에 따른 상하이 도시봉쇄 여파로 상반기 성장 둔화 지속

- 상반기 중국 경제는 제로 코로나(Zero-COVID, 动态清零) 정책¹¹⁾에 따른 상하이(上海) 등 도시봉쇄¹²⁾ 여파로 1분기 4.8%에서 2분기 0.4%로 급락
- 2분기 성장기여도는 최종소비 -0.84%p, 자본형성총액 0.27%p, 순수출 0.98%p 등으로 전반적으로 소비가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5월까지 산업생산 및 전력생산이 감소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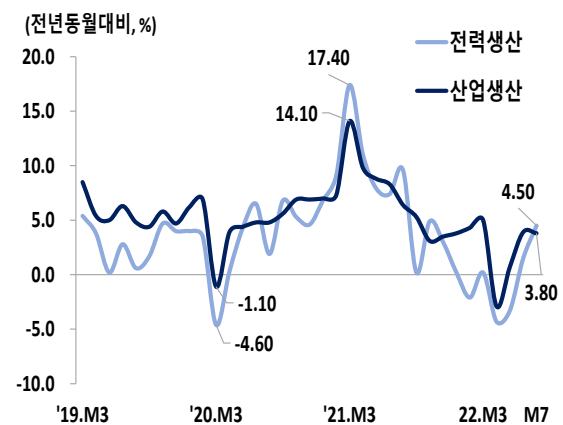
- 전력생산은 2022년 6월 1.5% 증가했으나, 4~5월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산업생산도 4월까지 0%대 증가에 그침
- 지난 5월 24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전방위적 경기부양책 효과로 6월부터 경기가 소폭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속

< 경제성장을 및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산업생산 및 전력생산 증가율 추이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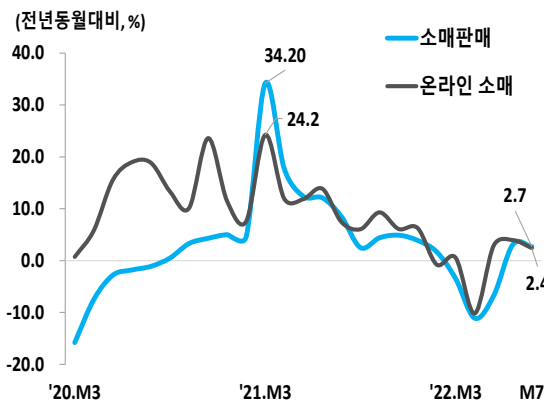
주 : 산업생산 증가율은 부가가치 기준.

11) 제로 코로나(动态清零) 정책은 중국의 국가위생위원회에서 코로나 발병 대응을 위해 지난 202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12) 2022년 9월 5일 현재, 청두(成都), 다롄(大连) 등 최소 7개 지방수도와 1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33개 도시에서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도시봉쇄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6,5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Caixin, 9.4. “全国33城部分或全部静态管理, 超6500万居民受影响”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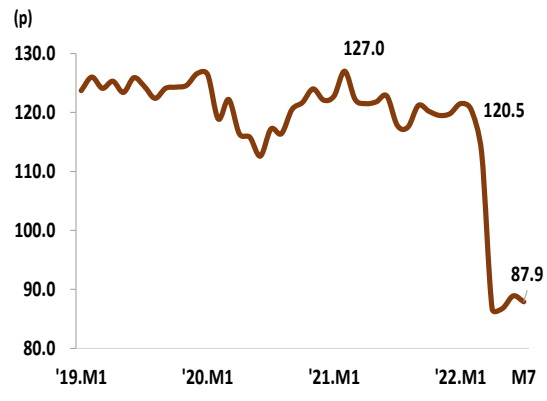
- 상반기 소비는 온라인 소매 등 소비의 주요 성장 동력 약화로 감소세 지속
 -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 3~5월까지 마이너스 증가율 양상을 지속하다 6월 부터 2개월 연속 플러스로 전환
 - 소매판매 총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온라인 소매(网上零售, Online retail sale)는 5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2020~2021년에 나타난 두 자릿수 증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
-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속 도시봉쇄 등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가 가중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
 - 중국 정부의 빅테크(Big Tech)¹³⁾ 규제는 2020년 10월 마윈(馬雲)의 핀테크 규제 관련 비판 사건으로 야기됐으나, 2022년 들어 IT 산업 관련 일자리 감소로 정부가 규제 완화를 시사¹⁴⁾
 - 이에 따라, 경제 및 소비 동향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비자신뢰지수(CCI)는 지난 1990년 1월 지표 이래로 22년 만에 4개월 연속 가장 낮은 80p대를 기록함

< 소매판매 및 온라인 소매 증가율 추이 >



자료 : CEIC.

<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



자료 : CEIC.

주 :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는 경제 및 소비 동향을 예측하는 일종의 선행 지표.

13) 빅테크란 구글(Google), 애플(Apple), 아마존(Amazon) 등 플랫폼을 주도하는 대형 IT 기업을 말하며, 중국기업으로는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징둥(Jingdong), 메이투안(Meituan), 핀뉘뉘(Pin duoduo) 등이 대표적임.

14) 지난 2년간(2020~2022) 중국 정부는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국가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IT 업체의 불황이 거듭되며 정치적으로 규제 완화 기조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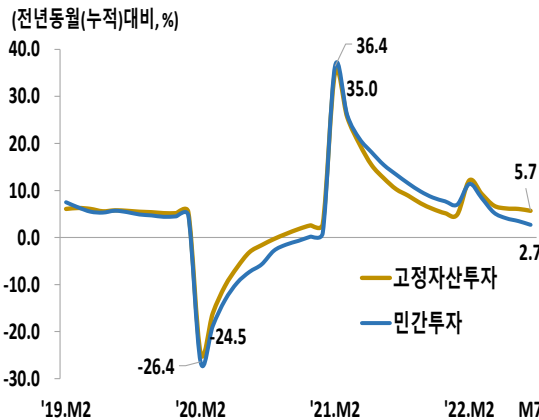
- 투자는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에 기인해 상반기 동안 6%대의 증가세가 지속

- 고정자산투자는 7월 누적기준 5.7%를 기록하였으며, 5월과 8월에 발표한 교통·인프라·신에너지 등 부문에 대한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확대 편성¹⁵⁾에 힘입어 회복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 한편, 민간투자는 동기준 2.7% 증가에 그쳤으나, 향후 금리 인하 등 완화된 금융통화 정책¹⁶⁾ 및 확대재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중국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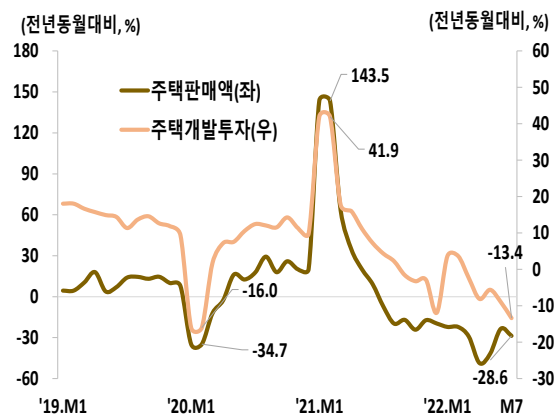
- 중국지수연구원이 집계하는 중국 100대 도시 주택평균가격 증가율이 7월 기준 0.32%로 지난해 5월 이후 16개월 연속 둔화세가 지속하며, 헝다발 부동산 쇼크 국면이 지속
- 부동산 시장의 수급을 나타내는 주택판매액 및 주택개발투자 증가율도 7월 현재 각각 -28.6%, -13.4%로 각각 13개월,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짐

< 투자 증가율 추이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부동산 주택 수급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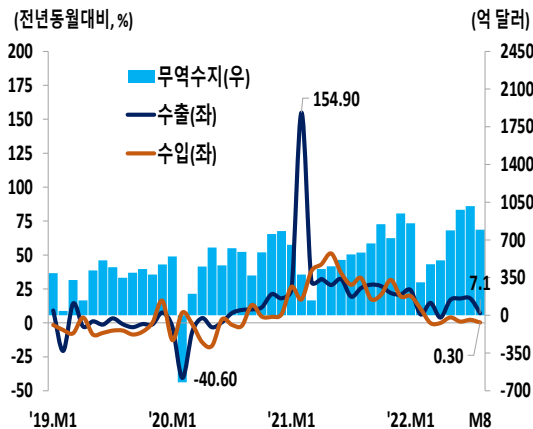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15) 중국 정부는 8월 24일 19개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 이 중 정책성 특수목적 대출한도를 3,000억 위안 증액하고, 10월 말까지 특수목적채권을 5,000억 위안 이상 발행하는 등 확대재정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는 방안 추진.

16) 2022년 중국인민은행 1월 17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인하, 1월 20일과 5월 20일, 8월 22일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4월 15일 예금지급준비율 인하 등 완화된 금융통화 정책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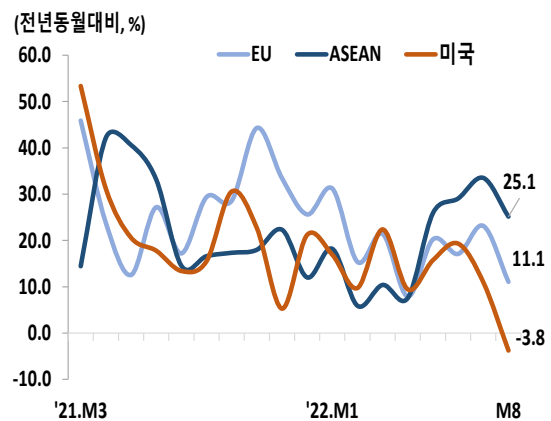
- 상반기 수출 경기는 러-우 사태, 도시봉쇄 등 요인에 따른 한시적 둔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증가세 유지
 -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상하이 봉쇄로 4월 3.9%로 한시적으로 급락했다가 5월부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회복세를 이어 왔으나, 8월부터 다시 한 자릿수를 기록¹⁷⁾
 - 한편, 수입증가율도 중국 내 도시봉쇄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며 올해 3월부터 5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침
- 주요 수출대상국인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미국 등에 대한 수출 경기가 비교적 호조세를 보임
 - 중국의 대세계 수출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EU(16.3%), ASEAN(15.7%), 미국(15.8%) 등에 대한 수출은 4월을 제외하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
 - 다만 8월 들어 美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로 對EU, 對ASEAN, 對美 수출이 전월 대비 감소
 - 특히, 對美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하는 등 향후 불확실성 상존
- 한편, 8월 관방 제조업 PMI와 차이신 및 IHS Market PMI는 각각 49.5, 49.4로 기준선인 50선을 하회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에 위치

< 수출입 증가율 추이 >



자료 : 중국해관총서.

< 주요 수출대상국 수출 증가율 추이 >



자료 : 중국해관총서.

주 : 2022년 8월 기준, 중국의 총수출 대비 EU 16.3%, ASEAN 15.7%, 미국 15.8% 등 비중을 차지.

17) 수출 경기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수요 감소뿐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 내 도시봉쇄 지속 등으로 둔화세로 돌아섬.

○ (전망) 2022년 하반기 중국 경제는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기 부양 효과로 소폭 회복이 예상되나, 당초 목표치인 5.5%에 크게 못 미치는 3%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제로 코로나 부작용 및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 경기 하방리스크 방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최근 경기부양책 지속 시행
 - 2022년 중국 경제는 상반기 러-우 사태 및 코로나 대응 도시봉쇄 등 하방리스크에 직면하면서 5월, 8월 연이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
 - 블룸버그(Bloomberg)에서 추정한 2022년 중국의 경기 부양 총액은 약 35.5조 위안(5조 3,000억 달러) 수준¹⁸⁾
- 다만, 부양 효과로 소폭의 경기 회복은 가능하나 5%대 성장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¹⁹⁾

< 2022년 중국의 주요 경기 부양 정책 >

구분	정책 범위	주요 분야	원인	투입 규모 (재정 파트)
3.5	- 안정성장 강소 기업 육성, 세금 부담 완화, 고품질 생산소 시행, 지역개발 등 6개 부문	- 차세대 반도체, AI 등 신산업 육성 - 중소기업 영세 기업 세금부담 완화	-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기 위축 방어	2.5조 위안 (3,740억 달러)
5.24	- 6개 부문 33개 정책 발표	- 재정(7개), 금융통화(5개), 투자 및 소비(6개), 식량 및 에너지 안전(5개), 공급망 안정(7개), 민생(3개)	- 도시 봉쇄 여파 대응	3.45조 위안 (517.5억 달러)
8.24	- 19개 추가 정책 발표	- 금융 및 재정지원 및 인프라 투자	- 경기 회복 지연 대응	1조 위안 (1,460억 달러)

자료 : 중국중앙인민정부, Bloomberg 자료, China Briefing 등 인용 및 정리.

- 향후 중국 경제는 4~5%의 지속 가능 성장이 어렵다면 10년 이내 진정한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하는 분석도 발표됨²⁰⁾

< 주요 기관 및 투자은행(IB)의 중국 경제 전망 >

구분	IMF ('22.7)	세계은행 ('22.6)	OECD ('22.6)	ADB ('22.7)	9개 투자은행 평균 ('22.8)
2022(E)	3.3%	4.3%	4.4%	4.0%	3.3%
2023(F)	4.6%	5.2%	4.9%	4.8%	5.5%

자료 : IMF, 세계은행, OECD, ADB 등 기관 전망치 및 국제금융센터 "Consensus Forecast"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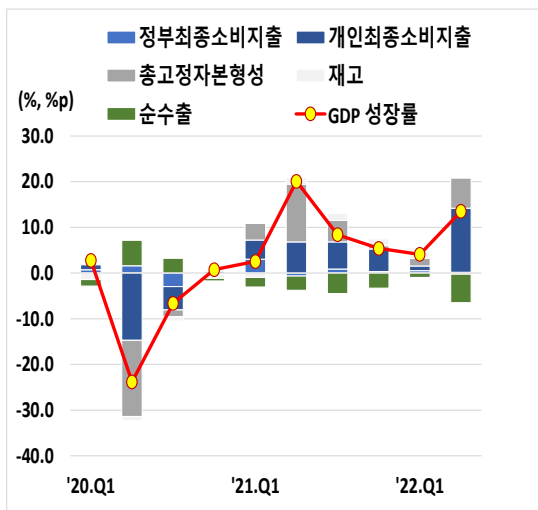
18) 추정 범위에는 세금감면액,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SPB), 인민은행 이익이전액, 기준을 인하액(RRR), LPR, MLF, 대출프로그램 등 금융대출 관련액 등이 포함됨.
 19) PII(2022.8.11.)의 티안레이황(Tianlei Huang) 연구원은 "China's Zero-COVID policies are crippling its economic outlook"에서 중국의 인프라투자 등 경기부양 정책을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적 견해 피력.
 20) Roland Rajah, Alyssa Leng(2022.3.14.)의 "Revising down the rise of China"에 따르면, 향후 중국경제가 글로벌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2~3%의 성장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⑤ 인도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재정·무역 쌍둥이 적자 등이 고성장을 제한

○ (상반기 평가) 인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속화

- 인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022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1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세가 강해진 것으로 판단
 - 인도 경제는 2022년 1분기 4.1%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는 13.5%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
 -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개인최종소비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14.0%p, 6.6%p로 높아졌기 때문
- 제조업 생산은 2022년 1분기 이후 회복세가 빨라지고는 있으나, 6월 들어 생산지수 증가세가 둔화
 - 제조업생산지수 상승률은 2022년 2월에 0.2%를 기록한 후 회복세로 전환되어 5월에는 20.6%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6월에는 12.5%로 상승세가 둔화

<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India MOSPI,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제조업생산지수 상승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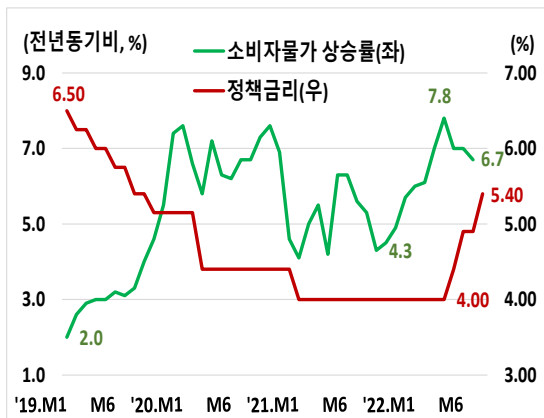


자료 : Reserve Bank of India, India MOSPI.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 지속과 소비자심리 위축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점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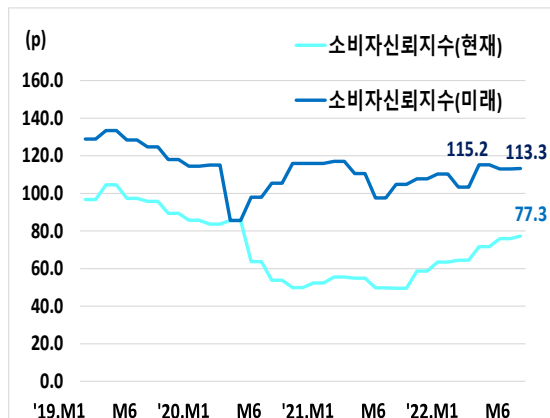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3월 7.8%까지 상승한 후 7월에는 6.7%까지 하락했으나 여전히 고물가 상황
- 정책금리는 4월 4.0%에서 4개월 연속 인상되어 8월에는 5.4%까지 상승
- 소비자신뢰지수의 경우 현 상황에 대한 기대는 기준선(100p) 미만이나 상승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는 기준선을 상회하나 최근 소폭 하락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정책금리 추이 >



자료 : Reserve Bank of India.

<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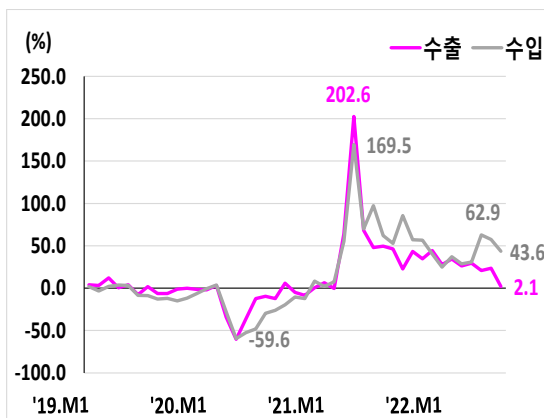


자료 : Reserve Bank of India.

-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등 주요 대외거래 수지는 대규모 적자가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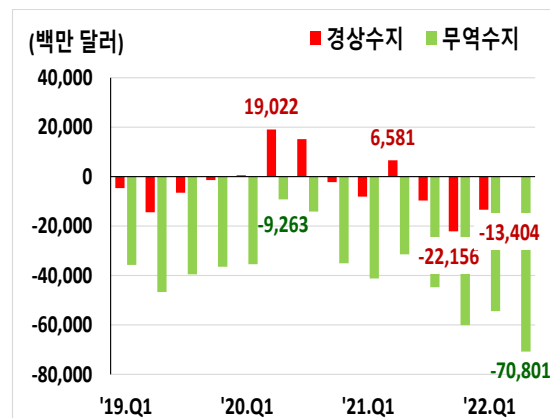
- 무역수지는 유가 등 글로벌 상품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적자를 지속 중으로 2022년 2분기에는 약 708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
- 경상수지 역시 2022년 1분기 기준 약 13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중

< 수출입 증가율 추이 >



자료 : Reserve Bank of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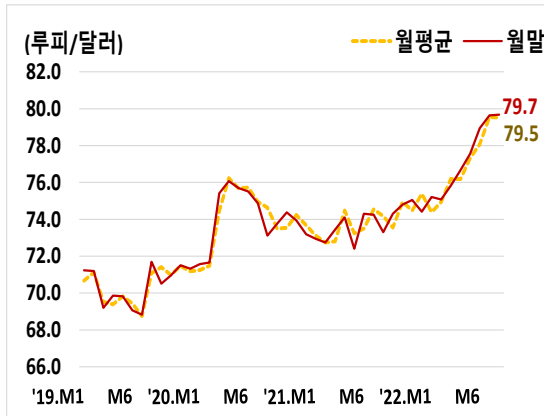
<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추이 >



자료 : Reserve Bank of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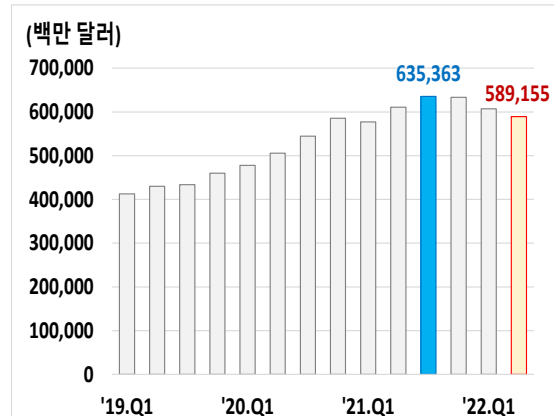
- 대외수지 적자 누적, 환율 상승 등으로 외환보유고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금융 시장 불안정성 고조 가능성이 점증
 - 환율은 8월 말 기준 79.7루피/달러로 2021년 말 대비 약 7.1% 상승
 - 외환보유고는 2022년 2분기 약 5,892억 달러로 2021년 4분기 대비 약 7.0% (약 447억 달러) 축소

< 환율 추이 >



자료 : Reserve Bank of India.

< 외환보유고 추이 >



자료 : Reserve Bank of India, IMF.

- (전망) 생산 및 소비 둔화, 대외수지 악화 지속, 재정적자 누적에 따르는 경기 부양력 약화 등으로 고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
- 일반정부 총지출이 수입에 비해 GDP 대비 10%p 정도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반정부 총지출의 GDP 대비 비중도 점차 축소될 전망
- 경제성장률은 2021년 8%대 후반, 2022년 7%대 중반을 기록한 후 2023년에는 6%대 초반까지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²¹⁾

< 일반정부 수입, 일반정부 총지출 및 경제성장률 전망(%) >

구분	2019	2020	2021	2022(E)	2023(F)
일반정부 수입 (GDP 대비 비중, %)	19.9	18.3	19.7	18.9	19.1
일반정부 총지출 (GDP 대비 비중, %)	27.4	30.1	30.1	28.8	28.2
경제성장률(%) (4월 전망과의 차이, %p)	3.7	-6.6	8.7	7.4 (-0.8)	6.1 (-0.8)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22.

주 :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회계연도 기준 당해년 2분기부터 다음 해 1분기까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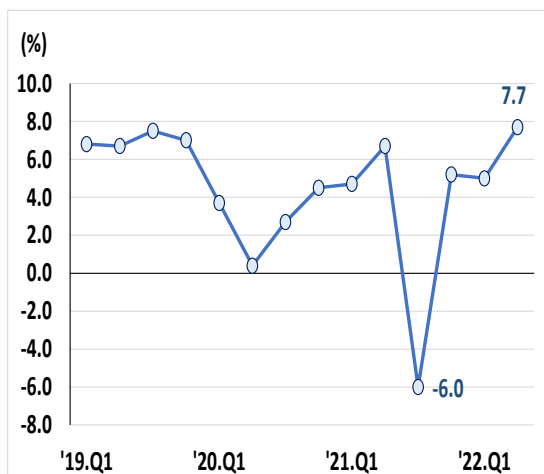
21) World Bank에 따르면 인도 경제는 2022년 7.5%, 2023년 7.1%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으로 IMF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성장세 둔화 예상. World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2.

⑥ 베트남 : 내외수 동반 회복으로 고성장 기조 유지

○ (상반기 평가) 베트남 경제는 코로나19 안정에 따라 서비스업 회복세가 빨라지고, 수출 호조세가 유지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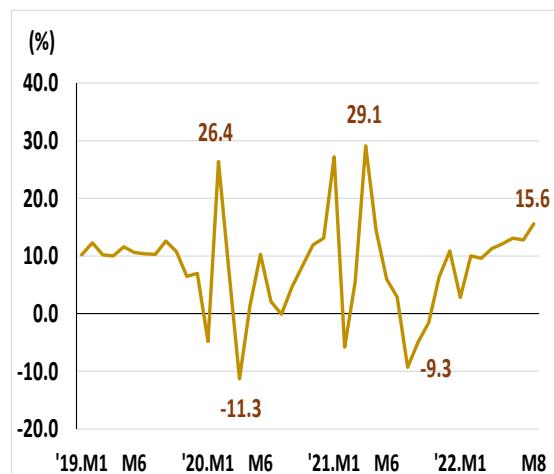
- 베트남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022년 들어서도 강한 회복세가 지속
 - 베트남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충격으로 2021년 3분기에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6.0%로 급락한 이후 급반등, 2022년 2분기에는 7.7%를 기록해 3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감
 -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소비 회복세가 가속되는 한편 외수 부문의 호조세가 지속 되었기 때문
- 제조업 생산은 2021년 11월부터 플러스로 전환, 최근 4개월 동안은 10% 이상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제조업생산지수 상승률은 2021년 11월 6.4%로 플러스 전환된 후 2022년 8월까지 10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2022년 4월부터는 5개월 연속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Viet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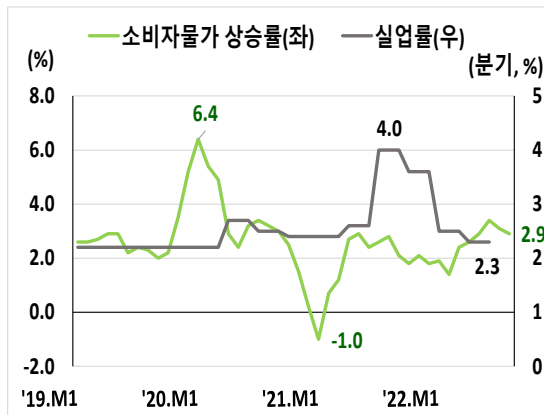
< 제조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



자료 : Viet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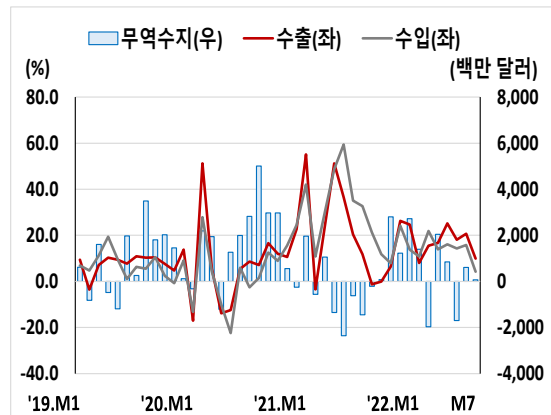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는 최근 2%대로 복귀, 실업률도 2%대 초반의 안정세 유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6월 3.4%까지 상승한 후 8월에는 2.9%까지 하락
 - 실업률은 2021년 3분기에 4%까지 상승했으나, 2022년 들어 1분기 2.5%, 2분기 2.3%로 하향 안정
-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무역수지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
 - 2021년 10월부터 플러스 증가세로 전환된 수출은 2022년 중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무역수지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실업률 추이 >



자료 : Viet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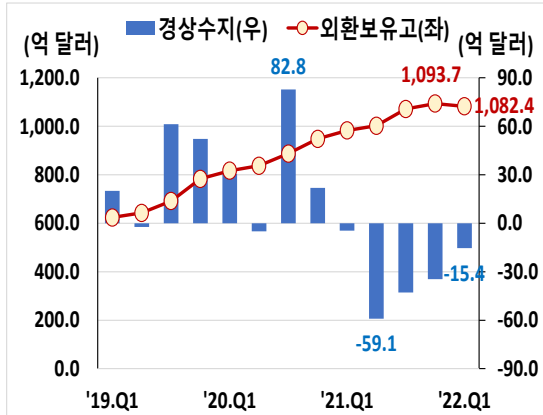
<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추이 >



자료 : Viet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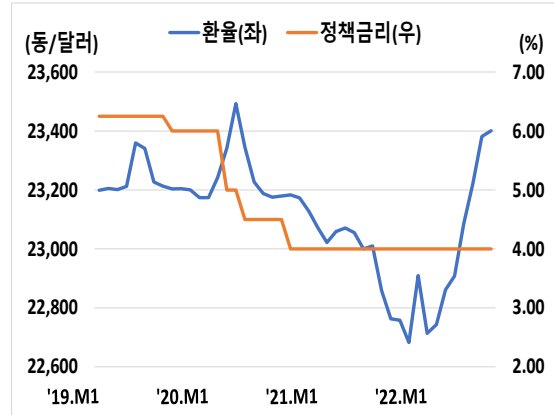
-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개선될 전망이며, 외환보유고 역시 변동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는 2021년 1분기에 59.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점차 개선, 2022년 1분기에 15.4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축소
 - 외환보유고 역시 지난 2021년 4분기 1,093.7억 달러에서 2022년 1분기 1,082.4억 달러로 소폭 축소되었으나, 경상수지 개선과 동/달러 환율의 안정세 유지 등이 기대되면서 변동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경상수지 및 외환보유고 추이 >



자료 : Viet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 환율 및 정책금리 추이 >



자료 : The State Bank of Vietnam.

- 동(VND)/달러 환율은 상승세이긴 하나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전망이며, 정책금리 역시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

- 동/달러 환율(월평균 기준)은 2022년 2월부터 오름세로 전환되어 8월에는 23,401동/달러를 기록했으나, 이는 2021년 12월 대비 2.1% 상승한 것에 불과한 수준
- 정책금리 역시 대외거래 수지 개선, 비교적 높은 외환시장의 안정성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전망) 향후 베트남 경제는 내외수 동반 회복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를 포함한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경기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2022년에는 6% 전후 수준, 2023년에는 6% 중반 이상의 성장이 기대

< 경제성장률 전망(%) >

구분	2019	2020	2021	2022(E)	2023(F)
IMF	7.0	2.9	2.6	6.0	7.2
Worldbank (1월 전망과의 차이, %p)				5.8 (0.3)	6.5 (0.0)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World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2.

3. 시사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 글로벌 공급망 개선 지연, 미중 갈등 지속 등 기존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주요국 경기 둔화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외 리스크 관리와 대내 경기 둔화 압력 해소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첫째, 기존 대외 리스크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로의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에너지, 원자재 등의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경색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에너지 및 자원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수급 불균형을 개선해야 함
-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사전적이고 지속적인 미세조정 및 안정화 조치 강화 등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함

둘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무역 등 대외 경상거래의 건전성 유지 노력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르는 국내 수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외 수출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부문과 민간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
- 신성장 산업 및 차세대 수출 유망 산업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 제고, 시장 특성별 수출 전략 차별화 등을 통해 對 중국 무역수지 악화 예방은 물론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해야 함

-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 확립 등을 통해 국내 여행 및 관광 생태계를 복원하여 대외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는 한편 불법적인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대외 경상거래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셋째, 미중 갈등 등에 따르는 국제교역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국내에 파급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 반도체, 배터리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주력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 재구축이 시급할 뿐 아니라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 관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관련 부문에 대한 생태계 확립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이 필요함

넷째, 대외 여건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 통화 및 금융 정책은 우리 경제 전반의 기초체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임
- 특히,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의 급작스러운 변동을 유발해 실물경제와 금융 부문이 동시에 침체되는 복합불황을 불러오지 않도록 해야 함
- 인플레이, 금리 상승 등 통화 긴축 지속, 경기 둔화 등으로 소비와 투자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심리 안정은 물론 소비와 투자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다섯째, 국내 기업들도 고수준의 원자재 가격이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과 같은 기존 리스크들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도 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당장, 핵심 원부자재의 재고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과 같은 대응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기업의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할 시에는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 이를 적극 보완해야 할 것임
- 단기적인 비용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혁신, 생산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유사 리스크 재발 시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HRI**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한 재 진 연 구 위 원 (2072-6225, hzz72@hri.co.kr)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신 지 영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 임 연 구 원 (2072-6248, syroh@hri.co.kr)